

이름 모를 나무

필자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주일학교 반사님으로부터 책 한권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셸 실버스타인(Shel Silverstein)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짧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은 때로는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도 자고, 때로는 그네를 매달아 타기도하며 그렇게 나무와 친분을 쌓아갑니다.”

“세월이 지나 소년이 장성한 때 그는 나무가 준 열매를 따서 내다 팝니다. 아무 말 없이 열매를 내준 나무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워합니다.”

“또 다시 세월이 흘러 소년은 중년에 이르게 되고 이때 소년은 그 나무를 잘라 배를 만듭니다.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몸통을 내준 나무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워합니다.”

“시간은 더욱더 흘러 이윽고 소년은 노인이 됩니다. 그때 나무는 밀동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그 소년에게 자신의 밀동부분까지 내어주며 노인이 된 소년의 의자가 되어줍니다.”

필자는 그때 나무를 어머니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TV의 한 광고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필자는 이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후속편이라 여겨 가슴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자막은 이러합니다.

“자식은 맛난 것을 먹고 배불러 하고, 부모는 자식이 먹는 것을 보고 배불러 합니다.”

“자식은 제 몸에 탈이 나서 아파하고, 부모는 자식 대신 아파 줄 수 없어 아파합니다.”

“자식은 자기 잘 될 꿈을 꾸고, 부모는 자식 잘되기를 꿈꿉니다.

세간에 회자(膾炙)되는 이야기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일일이 사랑하실 수 없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머니를 보내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어머니로, 달리 어머니를 나무로 보아도 위 책과 광고에 담긴 의미는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나무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렸을 적 한번쯤은 불려보았을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라는 동요입니다.

“나무야 나무야 겨울 나무야 눈 쌓인 응달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느냐”

“평생을 살아 봐도 늘 한자리 넓은 세상 애기도 바람께 듣고 꽃 피던 봄 여름 생각하면서 나무는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아직 철이 들지 않았던 그때는 그저 낭만적인 동요로 보았겠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비할 요량이면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나무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외로이 서서 그저 그렇게 한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시각에서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새겨볼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어머니를 이 나무에 빗대어 보면, 어쩌면 그리도 똑같은까 하는 것입니다. 무심한 자식을 위한 근심과 걱정으로 한 세월을 지쳐 가신 희생을 생각해 볼 때 말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소년과 자식을 지금의 우리로 바꿔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위에서 이야기한 나무를 우리 어머니로 바꿔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모로 보나 소년과 자식이 너무도 뻔뻔하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위에서 이야기한 두 나무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꿔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모로 보나 소년과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너무도 가증스럽고 패악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 07:09-11)

지금 이후로는 나무를 우리로 치환해 봅니다. 필자가 여기서 내보이고자 하는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겨울나무도 아닌, ‘이름 모를 나무’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필자 또한 우리 모두 ‘이름 있는 나무’가 아닌 곧이곧대로 ‘이름 모를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기록을 통해 이로부터의 신앙적 유익을 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적(救贖史的) 계획에 따라 모세의 인도아래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이윽고 시나이반도(Sinai Pen.)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때서야 비로소 확고한 민족적(民族的)·선민적(選民的) 자각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유랑의 세월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한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신앙의 연단기(鍊鍛期)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서 가나안 정착의 준비단계이기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척박한 수르(Shur)광야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은 3일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울의 물도 얻지 못했습니다. 기록에는 광야로 표현하고 있지만, 수르지역은 차라리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나을 정도의 황량하고 척박한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치고 지친상태에서 수르광야 인근 마라(Marah)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서야 비로소 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은 입에 대지도 못할 정도로 무척 써서 마시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이때 홍해를 건넌 환희와 기쁨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또 다시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기에 이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출 15:24-25)

무지하고도 믿음이 연약했던 이스라엘은 애굽의 마지막 재앙으로서 가축이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장자를 죽게 하셨던 유월의 기적과, 그들의 탈출을 위하여 바다를 가르신 홍해의 기적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몸소 체험하고도, 선민(選民)이 아닌 난민(亂民)인 듯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또 다시 저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위 기록에서의 탄식과 원망이 증표입니다.

물론 광야의 유랑생활 가운데 그들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역경에 지치게도 했을 테지만,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그들 앞에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털 끝 만큼이라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이처럼 마리아에서의 불평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와 믿음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후로도 그들이 각출(擧出)한 금은 고리로 형형색색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였고(출 32), 때로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극도로 원망한 것은 헤아릴 수도 없고, 때로는 애굽에서의 고기가마와 떡을 그리워하기도 하였음에야(출 16:03),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장자로서 선민(選民)이라는 이름은 이미 현신짜이 되어 그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지고 없었습니다. 시나이광야의 유랑이 필요했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악한

심사와 행악을 모두 낱알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연단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이 같은 행악을 보면, 당시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존재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곧 하나님 사랑가운데 거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었다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일말의 보답으로써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땅한 도리로서 이 같은 원망과 불평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손에 모든 행사를 맡겼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연약함, 나아가 그들의 배반까지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부터 시나이반도에 한동안 붙잡아 두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더 없는 사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되새겨 보기에 이는 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유랑의 도상에서 넉넉히 주셨다고 보아 이 또한 하나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가 만약 꿈속에서나마 시나이반도를 유랑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 있었다라면, 아마도 저들을 다시 애굽에 되돌려 보냈거나, 아니면 이민족(異民族)들의 노예로 삼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끊어오르는 화를 잠재웠을 것입니다.

외람된 이야기일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면에서 필자는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마라의 ‘이름 모를 나무’를 통해 우리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재차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 내가 먼저 남을 인정하기 보다는 남이 먼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다가보다는 이 같은 사람의 생각이 필시 사람의 본능적 심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있지 못한 이유에서 비롯된 결과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마라의 ‘이름 모를 나무’는 이 같은 사람의 본능적인 심사에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다고 봅니다.

앞선 수르광야에서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갑니다. 수르광야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토록 물을 찾아 헤매었지만 한 방울의 물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라에 이르러 그토록 찾던 물을 발견하긴 했지만 불행히도 그 물은 쓰디 쓴 물이었던 까닭에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었던 육신은 드디어 이성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이름 모를 나무를 모세에게 가리키셨고, 이에 모세는 나무를 물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어 그간 그토록 시달렸던 목마름의 갈증을 한시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이 기사를 재차 보기에, 한 이름 모를 나무를 던져 넣음 없이 단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 주셨으면 되었을 것을, 굳이 번거롭게 이 같은 이적을 통해 물을 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필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곧 ‘사랑의 증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라의 나무는 하나님 사랑의 증표가 되는 셈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한 마라의 나무는 지금까지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 나무인지, 어디에 자생하고 있는지 또한 정확한 이름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곧 이름도 없이 한낱 척박한 광야 어느 한 귀퉁이에 뿌리를 내리고 언젠가는 바람에 휩쓸려 말없이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한 나무가 제 몸 하나를 던져 온 이스라엘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울나무와 같이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나무는 아니었던 셈이 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움트고 있는 것들 중에 이름 없는 것이 있을까요? 풀 한포기,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微物)들에게도 제각기의 이름이 있기 마련인데, 하물며 온 이스라엘을 구해낸 희생제물로서 한 나무의 이름을 여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본능적인 심사를 향해 마라의 나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혹여 우리를 마라의 나무로 여기시고 이 세상 속에 던져 넣으신다면 우리는 이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사랑에 대한 희생제물로서 말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 모를 나무로서 지금의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타마리스크의 나무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출 16). 모두가 한결같이 이름 모를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와 교회의 형편은 이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이름 모를 나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진지 오래고 천지사방에 온통 형형색색 빛나는 이름 있는 나무들만 무성할 따름입니다.

보통 교회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이 그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같은 직분을 신앙의 척도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잘못된 생각을 여지없이 바꿔야 할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직분은 지위고하(地位高下)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보기에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경건한 '신앙고백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직분은 직분에 걸맞은 엄숙한 신앙이 요구되고, 깊고도 넓은 희생이 요구되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더욱 더 낮아지는 모습과 행실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직분은 그야말로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의 명패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것으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그리고 품위 등의 명함을 그대로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다분한 것 같습니다. 곧 신앙고백의 표상으로서 그 엄숙한 직분에 이 같은 명함을 덧붙여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분 그대로 크리스천의 명패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시 사회적 명함의 프리즘을 통해 직분을 줄 세우거나 가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형편에 익숙한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직분을 그저 말뿐인 허울로 뒷전에 두고 사회적 명함을 직분에 덧대어 내세워두고 있는 경향이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체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목소리가 크고, 가는데 마다 소란함을 대동하며 다니는 것이 통상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필자만의 편협한 생각일까요?

필자가 다니는 교회에 장로님은 필자가 알기로 짓갈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언제나 조용하고 말이 없으십니다. 장로가 앉는 단상을 박차고

나오셔서 예배는 항상 자모실(子母室)에서 드리십니다. 그것도 우리네 손자들을 돌보시면서 말입니다. 또 한 분의 권사님은 시장에서 순대국밥 집을 하시는 분인데 언제나 한복차림으로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부리나케 교회식당으로 가서서 뜨거운 가마솥에서 국수 삶는 일을 도맡아 하고 계십니다. 항상 흥건히 젖어 있는 한복밑단을 볼 때마다 절로 고개가 숙여지기 다반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사장님 또는 중역인 몇몇 분의 집사님, 정계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장로님, 건물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재력가로서 장로님, 대학에서 은퇴하신 교수로서 장로님 등은 이야기하기 꺼림칙하지만 어디를 가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도 잘 따르고 깃듯하게 예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교회의 후보 광고란에 어김없이 실려집니다. 교회에 머무는 동안 화제는 단연코 이들에 대한 신변잡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봅니다.

말이 나온 김에 교회주보에 관한 이야기도 이에 덧붙여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논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주보의 겉표지에는 대개 교회 목사님의 이름이 묵직하고도 듬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누구누구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교회건물의 투시도는 뒤에 배경이 되어 있음이 통례입니다. 장로들의 이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리고 예물의 봉헌자(奉獻者) 이름도 낱낱이 살필 수 있습니다. 십일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꽃꽂이 헌금 등으로 구분된 란에 가나다순으로 찾아보기 쉽게 말입니다. 그곳에 올라있는 자신의 이름을 발견할 때마다 그 희열을 남다르게 맛보고 또 미소 짓기 위함입니다. 이 같은 형식은 후보가 사라질

때까지 대를 물려 이어갈 변치 않을 형식입니다. 아니 그런가요?

그런데 지난 주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의 이름은 쉽게 찾기가
힘듭니다. 그것도 뒤지고 뒤져야 찾을 수 있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도
길을 찾아 나온 1마리의 양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은 자명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보의 전면에 사진과 함께 등직하게 그것도 자랑스
럽게 실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가요?

연말 구세군의 냄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그것도 익명으로 회사한 미담을
들어보셨습니까? 때마다 동사무소 앞에 수천만 원의 현금다발을 놓아두고
좋은 곳에 써달라며 사라진 날개 없는 천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국화빵, 젓갈, 해장국, 폐지 등을 팔아 평생을 털어 꼬깃꼬깃 모아둔
돈으로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 아낌없이 쾌척한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의 풋풋한 사연을 들어 보셨습니까? 이 모든 사연들이 그들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고자 의도했던 결과였을까요? 그렇다면 그 이름
들은 지금에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마라의 나무, 타마리스크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겨울나무 등을
포함하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나무, 우리네 어머님들의 나무, 한
마리 양의 나무, 모두의 공통점은 모두가 ‘이름 모를 나무’라는 것입니
다. 아니 그런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주신 나무는 어떤
나무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명명백백히 다음과 같이 이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마 07:17-19)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짙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눅 06:43-44)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따라 모든 이름을 떨쳐버린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해야 마땅할까요? 이 찬송을 그 고백으로 대신해 드립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멀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323장, 3절)